

# “주전 경쟁, 일본서 결판내자”

KIA 타이거즈 판 전지훈련 선수단이 귀국 하루 만에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여댔다. 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일시귀국한 KIA 투·포수조 선수단이 2일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7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판으로 출국해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단은 귀국 후 곧바로 훈련을 재개하며 2009시즌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뜨거웠던 판 캠프 열기를 보여주듯 선수들은 검게 그을린 얼굴과 한층 날렵해진 몸매로 오랜만에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안방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김상훈과 차일목, 이성우는 오전부터 티배팅을 소화하며 판에서 인전 그리고 다시 광주까지 8시간을 달려왔던 피곤함을 잊었다.

강철민을 필두로 양현종, 윤석민, 한기주 등 투수들도 오후 훈련을 위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무등경기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선수단을 진두지휘했던 조범현 감독은 달라진 선수단 분위기를 전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조 감독은 “선수들 스스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다”며 자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가장 큰 수확이라고 꼽았다.

또한 지난해 KIA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부상의 공포’에서도 벗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마무리 캠프 때부터 체력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특별한 부상 선수 없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깨 부상으로 힘든 겨울을 보냈던 이범석도 증상이 호전돼 본격적인 훈련 시작을 앞두고 있다. 조 감독은 한층 두터워진 선



판에서 일시 귀국한 KIA 타이거즈 투·포수조 선수단이 2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 KIA 투·포수조, 日 전훈 앞두고 몸만들기 돌입 이범석·강철민 등 부상병 탈피 ‘무한경쟁’ 예고

수층을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도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워낙 부상선수들이 많아 선수단 운영과 훈련 수위를 조절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 올해는 선수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주문할 생각이다. 생존하는 이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부상병에서 탈피해 화려한 복귀를 예고

하는 홍세완, 강철민은 다크호스다.

“이들이 부상으로 쉬는 동안 후배들은 물론 상대팀 선수들도 부쩍 성장했다. 본인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올 시즌 전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 합류한 두 용병에 대해서도 일단 합격점을 내렸다.

특히 구본수는 일본 무대 경험이 있는 만큼 혹독한 훈련 일정에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 선수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선수단 적응을 끝낸 용병들은 하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진행했다. 중간이 아닌 선발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한 조 감독의 주문이다.

무등경기장을 들쭉이게 했던 KIA 투·포수조 선수단은 3일에도 훈련을 실시한 뒤 인천행버스에 오른다.

4일 야수조가 있는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한 선수단은 다음달 4일까지 전지훈련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는 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01차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새 야구장 건립 민자 전환”

박광태 광주시장 밝혀

돔구장 가능성도 타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야구장 신축 사업이 국비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고, 돔구장 형태의 경기장 건립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당초 광산구 옥동차량기지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야구장 부지선정작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대구시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 광주야구장 건립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야구장 신축을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대구야구장 건설업체가 국내 유력업체로서 투자 여력이 있다고 판단, 민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구장 형태는 협상에 따라 돔구장 혹은 일반 야구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돔구장 건축 사업비가 일반구장보다 2~3배 비싸 민자유치 성사여부도 관망스럽다.

시는 지난해 1억7천만원을 들여 오는 2월 중순까지 완료예정이었던 야구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12월15일 잠정 중단했다.

한편 시는 당초 1천억원의 사업비(국비 270억원, 시비 730억원)를 투입, 8만㎡의 부지에 2만5천~3만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규격은 중앙랜스까지의 거리가 120~125m인 서울 잠실이나 인천 문학경기장 수준에 맞출 계획이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이유진·조인희 ‘2관왕’

(화순초교)

(장흥군청)

전남 금4은6 동5개

동계체전 사전경기

전남 이유진(화순초)과 조인희(장흥군청)가 동계체전 사전경기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동계체전 3관왕이었던 조인희 선수는 지난 1일 강원도 양양시리조트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스피린트 7.5km에서 23분46초1을 기록, 문지희(진도군청·24분13초9)를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조인희 선수는 지난 달 31일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 우승에 이어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유진 선수도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등부 프리 4km와 6km 계주에서 각각 장성에 올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조인희·문지희·송은영 선수로 구성된 전남선발 바이애슬론팀은 여자일반 18km 계주에서 1시간7분26초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또한 문지희 선수는 여자일반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와 스피린트 7.5km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 선수단은 이번 사전경기에서 이유진·조인희의 선전에 힘입어 금 4개, 은 6개, 동 5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서승원기자 swseo@

## 김연아 “이젠 아사다 부담없어요”

4대륙피겨선수권 참가 한국 남녀대표팀 캐나다 입성

“이제는 서로에 대한 경쟁의 생각을 떨쳐버릴 때도 된 것 같아요.”

‘피겨퀸’ 김연아(19·군포 수리고 사진)가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김연아는 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

겨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제2의 홈 타운이라고 생각했는데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5시간이나 걸려서 피곤하다”라며 “그래도 다른 대회 때보다 이동거리도 가깝고 전지훈련지인 캐나다라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그랑프리 파이널 이후 아사



다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둔 소감에 대해선 언제나 그렇듯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웃음을 지었다.

김연아는 “인론은 물론 팬들도 기대를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아사다와 경쟁”이라며 “나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런 부담이 들지 않게 각자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나상욱 아쉬운 3위

FBR 최홍일, 선두에 1타 뒤져

“캐디는 홀 오른쪽 끝을 보라고 했는데...” 2009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초반 상순세를 타고 있는 나상욱(26·타일러스트)이 1타차로 우승 기회를 놓쳤다.

나상욱은 2일(한국시간) 에리조나주 스크트데일TPC(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FBR오픈 마지막날 3언더파 68타를 치며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18번홀(파4)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흐르면서 연장전에 나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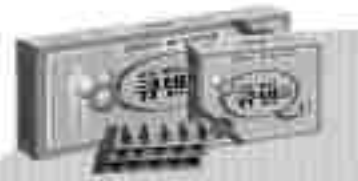
한편 위창수(37·테일러메이트)는 이븐파 284타로 공동 57위에 머물렀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약품, 건강·수명·행복·영양에 대한 고민, 노년기  
- 눈에 손조각을 하며, 기억력  
- 불모, 과로에 의한 각종 만성질환, 노년기의 건강  
-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 심혈관질환, 및 건강기능식품의 최우선 과제인 노년기  
- 노년기, 노년기

아연의 보충

●사물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ene.com.co.kr